

2.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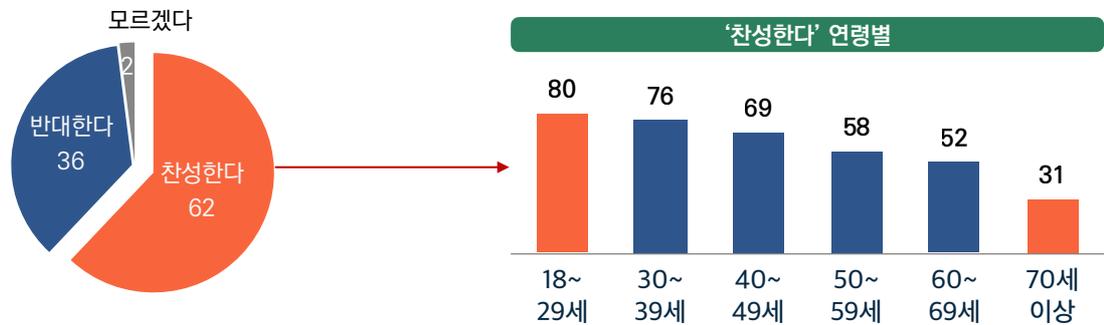
1



자녀의 성(姓) 결정 방식,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(姓) 선택 ‘찬성한다’ 62%

- NBS(전국지표조사, 국내 4개 여론조사기관 연합 정기 조사)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 자녀의 성(姓)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두 명 중 한 명의 성(姓)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‘찬성한다’ 62%, ‘반대한다’ 36%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와 같은 찬성률은 20대 80%, 70세 이상 31%로 세대 간 큰 격차를 보이는데, 자녀의 성(姓) 선택에 있어서 고령층일수록 아버지 성(姓)을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(姓)으로 자녀의 성(姓)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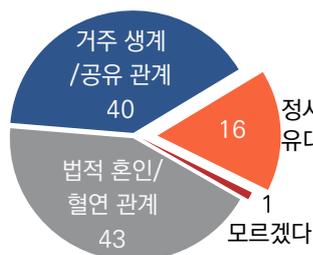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NBS(전국지표조사), '제 27호 2020년 5월 1주', 2021.05.06.(전국,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3명,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, 2021.05.03.-05.05)

● 우리 국민의 40%,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더라도 ‘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다!’

- 우리 국민의 5명 중 2명(40%)은 ‘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’고 응답했다. 이 결과는 ‘법적인 결혼 또는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가족이다’라는 전통적 가족관 43%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, 이는 전통적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- 특히 ‘정서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’는 의견에 대해 1인 가구 층의 응답이 21%로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장 높는데, 이는 사별 또는 자녀 분가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층에서 가족 관계에 있어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.

[그림] 가족에 대한 인식



[그림] '정서적 유대 관계로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' 응답률 (가구 유형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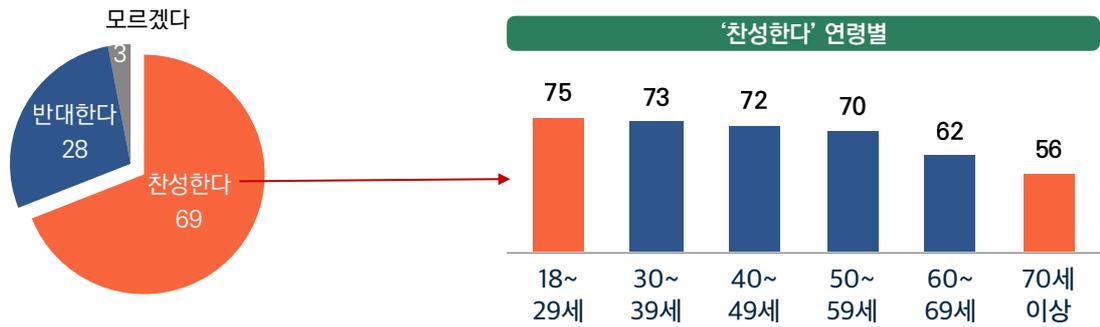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NBS(전국지표조사), '제 27호 2020년 5월 1주', 2021.05.06.(전국,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3명,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, 2021.05.03.-05.05)

● 우리 국민 69%, 동거/사실혼/위탁 가정 ‘가족으로 인정한다!’

- 전통적 혈연관계의 가족 형태가 아닌 확장된 가족 형태인 동거, 사실혼,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(69%)이 ‘찬성한다’고 응답해, 역시 가족 관계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.
- 확장된 가족 형태에 대한 찬성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한데, 세대별 가족 형태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눈에 띈다.

[그림] 동거, 사실혼,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찬반 (%)



*자료 출처 : NBS(전국지표조사), '제 27호 20201년 5월 1주', 2021.05.06.(전국,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3명,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, 2021.05.03.-05.05)